

大學圖書館 主題資料室 活性化 方案

경상대학교 도서관

강 홍 구

I. 들머리

대학도서관의 목적은 그 구성원이 요구하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것이다. 다양한 학습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조직하여 교수 및 학생들의 연구, 조사 및 학습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효과적으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 교육하며 새로운 정보를 축적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재생산해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도서관의 존재 이유는 정보를 원하는 이용자의 요구를 최대한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용자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요구사항의 분석을 통해 도서관 조직의 재구성과 사서의 역할 변화와 정보서비스의 변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즉 이용자가 외면하는 도서관이란 있을 수 없으며 이용자가 중심이 되는 사고로의 전환 없이는 도서관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문체계가 전문화 세분화되고, 이용자들의 정보 요구도 다양화되는 등의 환경 변화는 대학도서관이 자료중심 기관에서 정보서비스 기관으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제 또는 학문영역 중심의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으로 주제전문사서의 확보와 더불어 소장 자료의 주제별 조직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다.

1. 주제자료실의 개념

대학도서관은 도서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노력과 시간으로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최소 노력의 원칙에(principle of least effort)에 맞추어져야 하며 정보생산량의 증가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현재의 일반적인 기능별 조직으로는 효과적인 높은 수준의 정보제공이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일정한 분야에 있어서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도서관에 찾아오는 이용자의 요구에 적당한 주제구분을 만들어 그 구분에 따라서 배치함으로써 동일 주제 분야의 자료 접근을

용이하게 하며, 주제별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려는 것이 주제 자료실의 개념이다.

사전적 의미의 주제 자료실은 사서에 의해 주제별 혹은 학문 분야별로 이루어지는 장서 개발 및 참고봉사 등의 주제별 서비스를 목적으로 “1개 또는 수 개의 주제별 도서, 연속간행물, 소책자 등을 참고용이나 대출용의 구분 없이 일괄하여 소장하는 관리 방법으로 자료를 주제별 즉,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체능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남태우는 “대학도서관의 경우를 들어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으로 나누고 더 세분해서는 법률, 경제, 의학 등 특정 주제의 자료를 서비스하는 도서관 조직 체계(subject library system)를 의미한다고 했고, 강혜영은 “대학도서관의 자료를 주제별 혹은 학문 영역별로 한 공간에 모아두고 정보 봉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된 자료실”로 정의했다.

따라서 주제자료실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면, 주제별 또는 학문 분야별로 구분된 동일 주제의 다양한 여러 유형의 자료를 배치하고 이를 적정히 활용할 수 있는 주제전문지식을 갖춘 주제전문사서를 확보해 이용자의 주제별 요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도서관 조직 체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주제별 자료실 시스템에 관련한 선행 문헌을 조사하였고, 우리나라 도서관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종 문헌과 도서관이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의 내용 및 담당 사서와의 전화 면담 결과를 참고하였다.

3. 선행연구

Kikuchi(1977)은 도서관이 이용자의 정보요구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주제별 도서관 형태로 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근거로 장서가 늘어남에 따라 모든 자료를 하나의 조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Johnson(1977)은 미국 대학도서관의 주제별 분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1939년에서 1974년까지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는 주제별 조직형태가 초기의 도서관 조직과 서비스 형태라고 설명하면서 도서관 장서에 대한 주제별 접근의 필요성과 학부 학생들의 요구, 주제별 도서관이 조직에 끼치는 교육적인 영향을 주제별 분화의 당위성으로 주장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주제자료실에 관한 연구는 안영주(1966)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새로운 참고 봉사제도로써 주제 전문사서와 주제별 열람실 제도의 채택을 권고하였다.

윤희운(1982)은 국립대학교 도서관을 대상으로 조직 구조의 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조직

개선 모형의 하나로, “비도서자료, 고서 등의 특수자료를 제외한 일반 인쇄 자료는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3-4개 영역으로 군집화 하는 주제별 조직 형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강진백(1994)은 “이용자군과 주제군에 알맞은 학문영역에 따른 부문화에 자료의 유형과 테크놀로지의 유형을 가미한 측면적인 조직 구조 즉, 인문과학, 의학, 법률, 농학 자료실, 고서실, 시청각자료실 등의 부서를 두고 각 부서의 특징에 맞도록 수서, 정리, 이용자 봉사를 담당하는 조직 구조로의 일대 변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준민(1994)은 “대학도서관의 조직을 정보 유통과 일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존의 자료의 형태별 조직은 행정 편의 위주로 구성된 만큼 개선되는 도서관 시스템은 정보의 흐름에 따른 형태를 취해야 하며, 이용자의 정보 요구에 대해 철저히 서비스할 수 있는 조직의 대안으로, 주제자료실의 담당 사서가 이용자 서비스를 충실하기 위해 참고 봉사는 물론이고 자료를 선정하고, 정리 업무를 수행하는 ‘One Person Library’체제를 제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용재(1999), 강혜영(1999), 정재영(2000), 이소정(2001)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용재(1998)는 최근 국내에서 주제자료실 체제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 도서관들을 살펴보고 현재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사서 인력에 바탕을 두는 ‘주제사서제’ 개념을 제시하였다. 또 다른 그의 논문에서도 부산대학교 도서관이 최근 주제자료실 체제를 구축하면서 이용자 중심의 정보봉사로 향상되고 있는 상황을 묘사하면서 향후의 기본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강혜영은 주제 담당 사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11개 대학도서관의 사례 및 실태 조사를 통하여 주제 담당 사서 제도의 운영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로 주제 담당 사서의 역할은 담당 주제 분야의 관련 학과, 이용자 층, 이용자 수, 장서량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장서개발, 주제 전문사서의 교육문제, 타 대학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정재영은 서강대학교 도서관의 ‘주제관’을 운영하면서 주제별 참고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주제별 서비스에 대한 여러 현실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소정은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에서 주제별 조직의 운영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도서관의 주제전문화 현황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이용자 봉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제별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주제자료실과 관련하여 발표된 여러 선행 연구를 살펴보았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 중반이후에 주제자료실 운영 사례를 조사하면서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실정에 맞는 대학도서관의 주제별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II. 주제자료실 운영의 필요성 및 장단점

1. 주제자료실의 필요성

대학도서관이 가지는 학문연구 및 교육의 기본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대학도서관은 대학 내에서의 위치적 한계성과 도서관의 보수적인 기류 그리고 변화하는 시대적 환경에 대한 대응전략의 부족 등으로 인해 대체로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자료의 유형을 중심으로 구조화하고, 주제자료실을 제한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에 기존의 기능별 조직 유형으로부터 어느 정도 주제전문화 되었는데에 따라 기능별 조직, 기능별/주제별 조직(혼합형), 주제별조직(완전 주제별) 형태로 구분하여 수행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대학도서관도 주제자료실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도서관이 주제별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하는 필요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급변하는 정보기술 환경을 들 수 있다. 1990년대 초부터 자체 개발하기 시작한 데이터베이스들, LAN환경에서의 각종 웹 데이터베이스(Web DB), 전자저널(Electronic Journal) 등의 증가, 사이버스페이스(Cyberspace), 가상도서관(Virtual Library), 가상현실도서관(Virtual Reality Library) 등의 정보기술 환경 때문에 대학도서관의 기능별 조직은 주제별이나 이용자별 조직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 즉, 도서관 주변 자동화를 포함한 정보기술의 변화는 기능별 조직으로는 이용자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둘째, 대학의 지리적 여건은 도서관 전체의 조직 형태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왜냐하면 대학 규모의 확장에 따른 캠퍼스의 지리적 분산과 학문의 분화로 캠퍼스의 규모와 위치가 변하면 도서관은 새로운 봉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중앙관에서 멀리 떨어진 이용자 집단의 자료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봉사 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주제별 도서관이나 부문별 분관을 설치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대학에서 교육하는 모든 학문은 학문 영역별로 더욱 세분화되고 있고, 장서량의 증대, 정보이용의 계속적인 증가로 보다 완전한 도서관 업무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중·대규모 대학도서관(장서 50만권 이상)에서 분관 시스템 등을 필요로 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는 대학도서관 이용자의 정보수요와 정보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여 보다 전문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으로 운영되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도서관과는 별개로 학문 영역별이나 주제별로 봉사할 수 있는 부문별 도서관이나 분관을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다.

따라서 대학도서관은 대학교육 환경의 변화, 이용자들의 다양하고 전문화된 정보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고, 주제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유형별 서비스 체계에서 주제 자료실로의 변신이 불가피하며, 이러한 주제 자료실로의 변모를 통하여 전문적인 학술정보 제공이나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원활히 지원할 때 도서관에 대한 인식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2. 주제자료실 운영의 장단점

대학도서관의 자료 및 조직 관리의 집중화와 분산화 문제는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학자들이 주장하는 주제자료실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바이런트(D. W. Byrant)는 장서의 집중화를 선호하는 이유로 커뮤니케이션의 개선, 자료 중복, 표준화된 규칙과 규정의 적용상 어려움 등을 지적하였고, 와트(T. D. Watts)는 장서 관리의 분산화를 반대하는 이유로 지식의 상호 의존성 증대, 이용자에 대한 많은 불편 초래, 장서의 분산으로 인한 경비 증가, 학문간의 커뮤니케이션의 방해들을 지적하였다.

반면 히바드(M. Hibbard)는 장서의 집중화가 효율적인 관리와 비용 부담의 경감이라는 측면에서는 설득력을 갖지만 기타 분산화의 저해 요인들은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해결될 것으로 평가하였고, 바스티암필라이와 윌리엄스(M. A. Bastiampillai and P. H. Williams)는 현대도서관이 이용자 봉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상 일종의 주제별 전문화는 약간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Bastiampillai와 Havard-Williams(1987)는 주제전문화 경향을 현대도서관에서의 이용자 봉사에 대한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주제 지향적 조직 내에서는 직원이 자신의 장점을 개발할 수 있으며, 업무 만족도가 높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현대 도서관이 이용자 봉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시점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학자들의 주장을 바탕으로 주제별 자료실 운영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점은 첫째 사서와 자료를 학문 영역별로 집단화함으로써 이용자에 대한 개별 서비스가 가능하고, 이용의 용이성에 따른 자료 이용의 증가로 재정 투자를 유발할 수 있다. 둘째 이용자와 도서관과의 효과적인 연계가 가능하여 기존 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다는 점. 셋째 주제별 전문서비스를 원활히 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편의를 최대로 고려할 수 있다는 점. 넷째 합리적인 장서관리와 전문적인 이용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다섯째 사서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사서의 업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 여섯째 이용자의 요구를 예상하거나 파악하여 사전에 적절히 대처하여 한발 앞선 봉사가 가능할 수 있다 것 등.

단점은 첫째, 주제별 조직간에 불균형 둘째, 중복적인 서비스에 따른 높은 행정 비용의

증가 예상, 셋째, 주제전문사서의 업무량 증가와 처우문제 넷째, 주제전문사서의 채용과 양성 문제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도서관 전산화가 되어있지 않았던 수작업 환경에서는 집중화된 조직 구조가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이었으나, 현대와 같은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오히려 분산화가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주제별로 자료를 분산화하고, 주제별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대학구성원들에게 도서관의 존재 가치를 확고히 할 수 있다면 비용의 절감에 앞서 주제 자료실로의 전환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Ⅲ. 대학도서관 주제자료실의 운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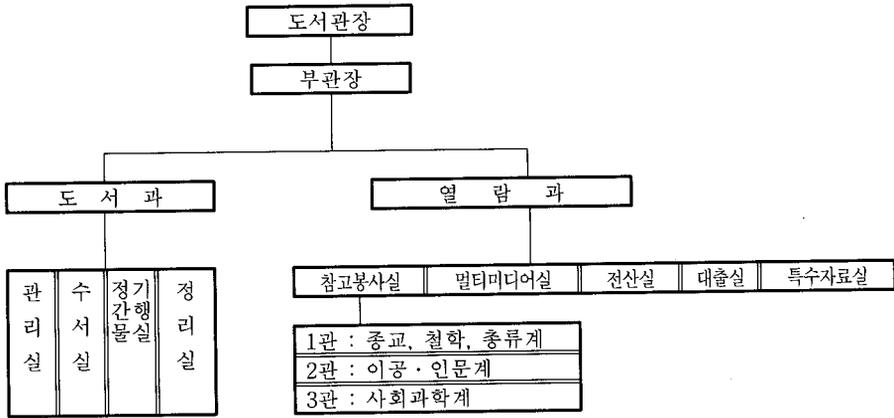
먼저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제자료실의 조직과 운영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1. 주제별 조직형태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주제별 조직의 형태는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중앙도서관내 주제별 자료실을 설치한 경우, 둘째 중앙도서관 외에 주제별 분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셋째 주제자료실과 주제분관이 모두 설치된 경우로서 중앙도서관 내에 주제별 자료실이 설치되어 있고, 주제별 분관도 설치되어 있는 경우이다. 즉 주제자료실 유형의 주제별 조직, 주제 분관 유형의 주제별 조직, 주제자료실과 주제 분관 모두 운영되는 조직으로 구분된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주제별 운영 현황을 보면 대체로 기능별/주제별/자료형태별 조직의 혼합형과 완전한 주제 조직으로 되어있다.

국립대학교도서관의 경우 몇몇 거점대학에서 혼합형 유형의 주제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학생수가 일만명 이하인 국립대학은 기능별 조직만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주제형 조직의 도서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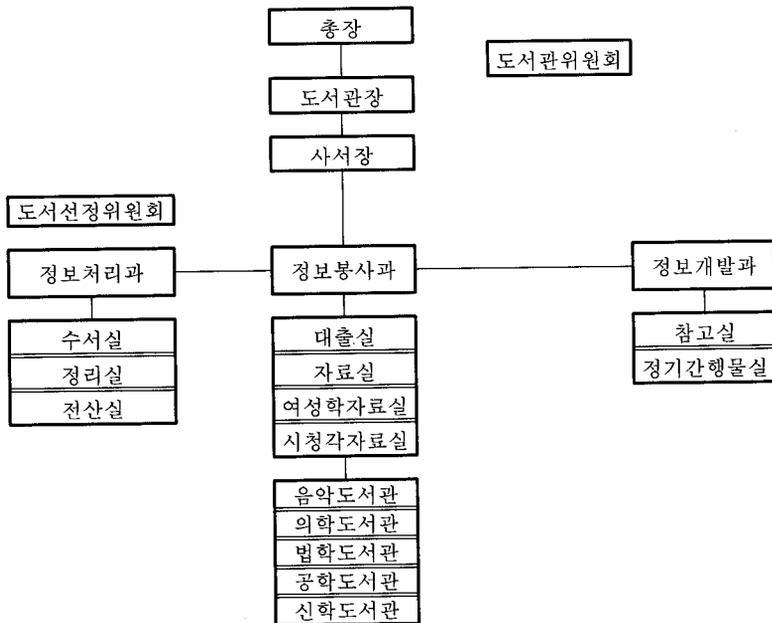
가. 주제별 조직+기능별 조직+자료형태별 조직



<그림 1> 주제별+기능별 조직+자료형태별 조직도

<그림 1>은 중앙도서관내의 자료실을 3개의 주제자료실과 수서계, 정리계의 기능별 조직, 연속간행물실의 자료형태별 조직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서강대학교 도서관을 예로 들 수 있다.

나. 주제 분관+기능별+자료형태별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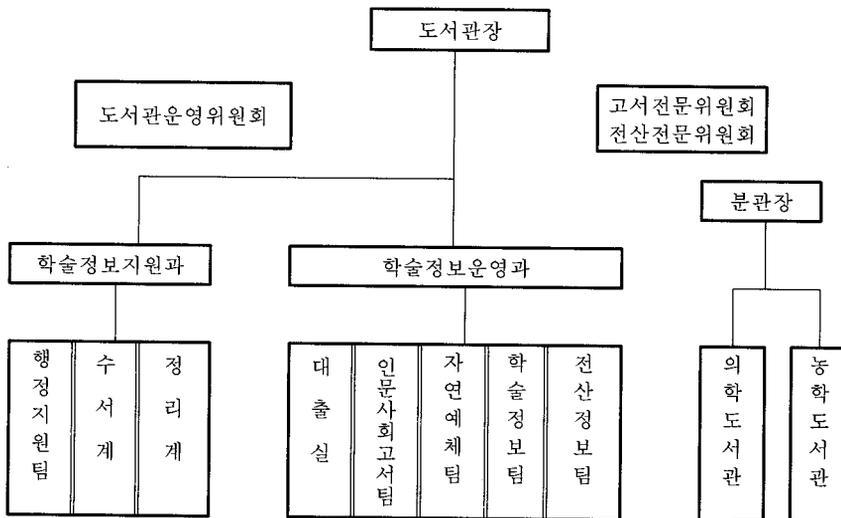


<그림 2> 주제 분관+기능별 조직+자료형태별 조직도

<그림 2>의 경우 가장 많은 수의 주제 분관을 운영하고 있다. 5-6개의 주제분관으로 나누어진 주제별 조직이 운영되며 중앙도서관내에 기능별 조직으로서 수서정리과와 참고실, 학위논문실, 연속간행물실 등의 자료형태별 조직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도서관, 이화여대학교도서관이 대표적 경우이다.

다. 주제자료실과 주제 분관+기능별+자료형태별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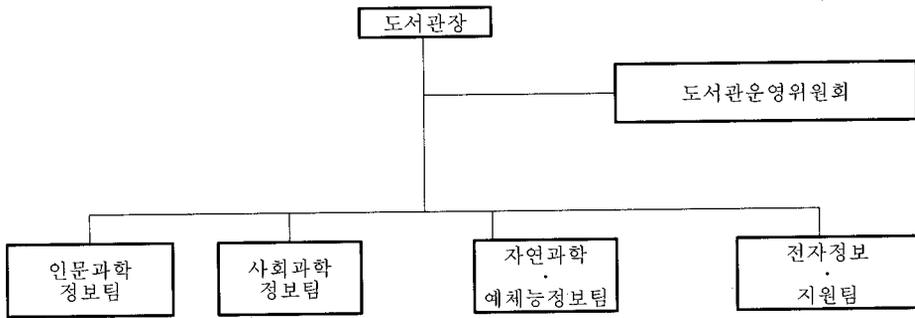
<그림 3>의 경우 두 세 개의 주제자료실과 두 세 개의 주제 분관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수서계, 정리계의 기능별 조직과 학술자료실, 전자정보실 등의 자료형태별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국립대학교 중 경상대학교도서관, 전남대학교도서관, 충남대학교도서관 등 일부 거점대학 도서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유형의 도서관이다.



<그림 3> 주제자료실과 주제 분관+기능별 조직+자료형태별 조직도

라. 완전 주제별 조직

<그림 4>의 경우는 3개의 주제정보 팀으로 나누어져 일체의 도서관 자료를 주제로 나누고 직원과 업무도 주제별 조직으로 나누어 배치하여 각 주제조직에서 모든 도서관 업무를 별도로 수행하는 완전한 주제별 조직의 유형이다. 국내 실정에 적합한 완전 주제형 조직으로 숙명여자대학교도서관과 한양대학교도서관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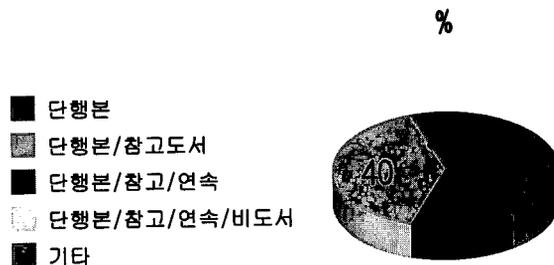
<그림 4> 완전 주제별 조직도

2. 주제별 운영 현황

가. 주제별 조직의 자료 형태 및 업무

(1) 자료배치 형태

<그림 5>와 같이 주제별 자료실을 운영중인 대학도서관 중 20% 정도는 단행본과 참고도서만을 자료실에 비치하고, 20% 정도는 단행본, 15% 정도는 참고도서와 연속간행물도 주제별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약40% 정도는 모든 형태의 자료를 구분하여 주제자료실별로 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자료 배치 형태

단일 주제 분야의 모든 자료를 한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자료의 성격상 관리의 효율성 문제를 고려한다면 반드시 그렇지 않다. 특히 주제자료실이 설치된 대부분의 국립대학교도서관에서는 전자의 2개의 유형으로 자료가 배치되어 있다.

(2) 수행 업무



<그림 6> 수행 업무 형태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제별 자료실을 운영중인 대학도서관 중 40%정도가 주제별 자료실에서는 열람과 참고봉사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서 및 정리와 같은 도서관 기술봉사업무와 대출업무는 중앙도서관내의 다른 부서에서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25% 정도는 대출업무도 주제자료실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현실에서 이용자 요구를 반영하면서 효과적인 이용자 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도서관 경영상의 효율성, 인력배치, 건물 공간 등 개별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주제별 조직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주제자료실과 주제 분관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몇몇 도서관에서는 직원의 업무만족과 이용자의 반응이 대체로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나. 주제별 조직의 직원 및 예산

(1) 직 원

주제자료실이나 주제 분관의 직원 배치는 60% 정도가 도서관에서 임의로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 정도는 직원의 전공, 적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였으며, 20% 정도는 직원이 봉사하기를 희망하는 주제를 조사하여 배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제자료실이나 주제 분관의 주제전문 사서를 배치 한곳은 10%정도이고 대부분의 도서관에서는 도서관 근무경력이 평균 18년에서 20년 된 사람으로 이들의 연령은 주로 40대 이상으로 도서관 업무를 다 경험한 사서들을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헌정보학 이외의 타 전공 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 주제전문사서가 많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2) 예산

주제자료실이나 주제 분관의 예산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 80% 정도가 각 자료실로 예산을 배분하지 않고, 중앙도서관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관리한다고 확인되었다. 약15% 정도는 자료실별로 예산을 책정, 배분 받아 집행한다고 나타났다. 중앙도서관에서 통합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주제별 자료실로 예산이 배분되는 기준은 교수와 학생수에 따라서, 각 주제자료실에서 원하는 자료를 신청하는 대로, 희망도서 신청건수에 따라서, 각 자료실과 관련한 전공학과 수에 따라서 배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제별 분관을 운영하는 대학도서관에서도 위와 비슷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제별 조직의 업무량이 과도한 상황에서 예산관리까지 주제별 조직에서 수행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3. 주제별 조직운영의 문제점

주제별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도서관에 나타난 가장 큰 문제점은 첫째, IMF이후 획일적인 인력 감축과 신규 직원의 채용 억제로 인한 인력 부족을 들 수 있다. 둘째, 담당사서의 능력부족과 주제자료실에 대한 이용자 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담당사서의 업무과중으로 인한 서비스의 극대화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는 도서관의 지출의 증가와 주제 자료실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 부족을 들 수 있다.

IV. 대학도서관 주제자료실 운영의 활성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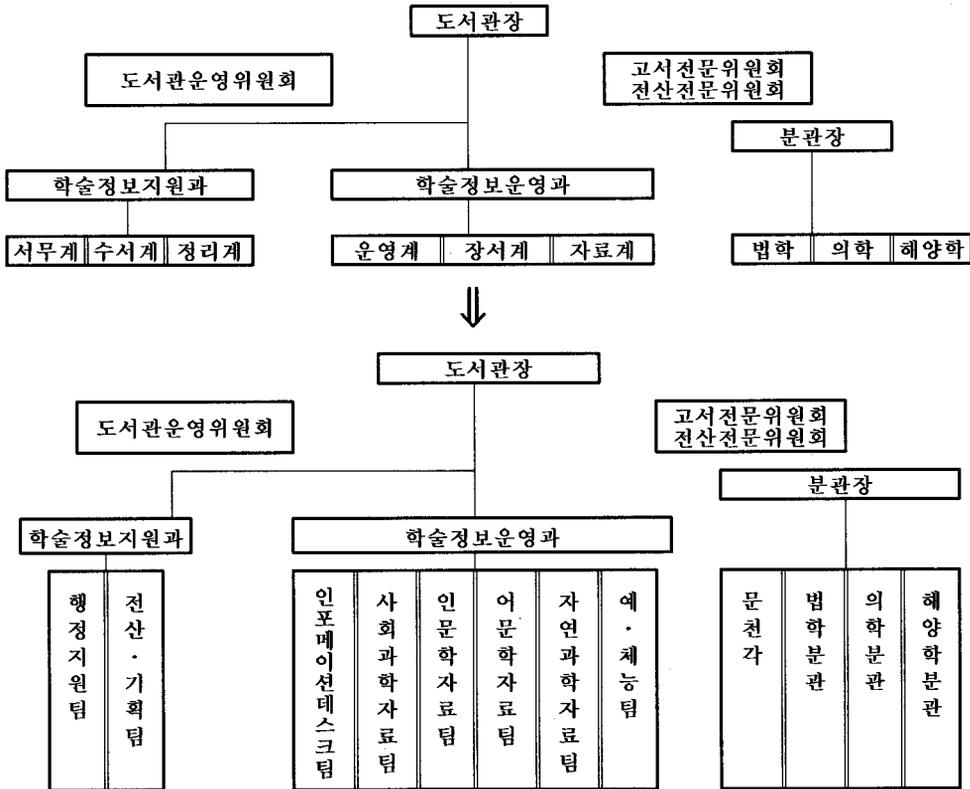
대학도서관의 주제별 운영은 해당 도서관의 전체적인 체제와 인력의 배치 그리고 정보서비스는 이용자를 중심축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즉 해당 대학의 특성에 맞게 몇 개의 단위로 학문을 인문과학·사회과학·자연과학 등의 영역으로 군집화한 주제자료실이나 주제 분관에 다양한 형태의 정보자료를 배치하여 이용자의 정보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학교도서관의 주제자료실 운영 현황 분석을 통하여 경상대학교도서관 주제자료실 운영의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나름대로 조직, 사서, 정보서비스 측면에서 정리해 보았다.

1. 조직

현재 경상대학교도서관은 기능별/주제별 조직의 혼합형으로 중앙도서관, 학술정보관 2개의 도서관과 법학, 의학, 해양학분관 3개의 주제별 분관, 남명학 관련 한적자료 중심의 특성화된 문천각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도서관내에 사회과학, 인문학, 자연과학자료실로 3개의 주제군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는 기능적 구조를 기본틀로 하면서 주제별 자료실에서 이용자 봉사의 측면만 강화시킨 주제별 조직의 초기 단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는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림 7>과 <표 1>에서와 같이 향후 10년 이내에 자료의 형태에 상관없이 모든 도서관 자료와 업무가 분리되는 완전 주제형 도서관으로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 주제군을 3개에서 5개로 나누고, 멀티미디어 기자재를 활용하여야 할 비도서자료의 경우에 한하여 일부 형태별 자료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지역 대학특성에 맞는 남명학 관련 자료를 집중 수집, DB화하여 지역과 연계한 특성화 도서관 신축을 준비하고 있다.



<그림 7> 현재/향후 조직도

- ① 행정지원팀 : 계약, 지출, 인사, 물품관리, 시설·청사관리, 기타 서무업무
- ② 전산·기획팀 : 기획·홍보, 전산관련 업무, 전자정보실, 정보검색실 관리
- ③ 인포메이션데스크팀 : 대출·반납, 이용안내, 특별열람증발급, 분실물관리 등 각종 행정서비스

이를 위하여 첫째 업무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업무체제를 갖추고, 둘째 도서관장서의 양적, 질적 성장을 위하여 장서개발 계획을 세우고, 셋째 특정주제에 포함되지 않는 자료나 특수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자료에 대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넷째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한다. 현재의 도서관 건물의 공간배치는 주제자료실로서의 기능이 미비함으로 도서관 장기발전계획과 함께 효율적인 공간배치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표 1> 주제자료실 구성

구분	현 제	향후 개편 계획	비 고
주 제 자 료 실	①사회과학자료실 ②인문학자료실 ③자연과학자료실	①사회과학자료실 ②인문학자료실 ③자연과학자료실 ④예·체능자료실 ⑤어문학자료실	
주 제 분 관	①법학분관 ②의학분관 ③해양학분관 ④문천각(한적자료실)	①의학분관 ②해양학분관 ③문천각(한적자료실) : 신축 ※남명학 자료 특성화	
소 장 자 료	①일반도서 ②참고도서	①일반도서 ②참고도서 ③학위논문 ④연속간행물(제본) ⑤말림자료(CD, 카세트, 비디오 등)	
담 당 사 서 업 무	①참고 질의/응답 ②주제별 온라인 참고 서비스 ③각종 서지 정보제공	①참고 질의/응답 ②주제별 온라인 참고서비스 ③SDI서비스 활성화 ④주제자료 선정 ⑤각종 서지 정보제공 ⑥도서정리 ⑦이용자 교육	

<표 2> 인력배치 계획

구분 자료실명		현재				구분 자료실명		향후			
		사서	일반	기타	계			사서	일반	기타	계
주 제 자 료 실	사회과학	1	1	3	5	사회과학자료팀	3	1	5	9	
		인문과학	1	2	8	11	인문학자료팀	3	1	5	9
	자연과학	어문학자료팀	3	1	3	7					
		자연과학자료팀	3	1	4	8					
		예·체능자료팀	2	1	2	5					
인포메이션데스크	2	2	2	6							
주 제 분 관	문천각	1		1	2	주 제 분 관	법학분관	2	1	1	4
	의학분관	2		2	4		의학분관	2	2	2	6
	법학분관	1	0	1	2		해양분관	2	3	2	7
	해양분관	2	1	0	3		문천각	2	1	2	5

<표 2>에서와 같이 현재 경상대학교도서관 주제자료실 배치사서는 1명으로 다른 대학도서관의 경우에 비하여 주제자료실 업무를 수행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이에 수서·정리 업무를 각 주제자료실에서 수행하도록 하여 기존 수서계, 정리계 인원을 주제자료실에 배치하여 업무와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또한 신규 인력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대출 및 반납 업무, 특별열람증 발급, 학생증제발급, 분실물관리 등의 행정서비스와 이용자 출입과 관련한 업무는 안내데스크(Information Desk)에서 담당함으로써 각 주제자료실의 업무 중복을 피하게 하며,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도서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상에서 경상대학교도서관의 조직 및 자료구성에 대하여 계획 중인 사항을 살펴보았다. 다른 대학도서관의 경우 공간, 장서량, 사서 인력과 비용이나 이용자 측면에서 제반 요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형태의 주제별 조직을 선택하여야 한다.

2. 사 서

주제자료실 운영의 주체는 자료실을 담당하고 있는 사서이다.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주제별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는 곳의 가장 큰 문제점이 주제별 조직을 담당할 직원의 부족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서가 양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특정주제 분야에 대한 정보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주제전문 사서가 현재 우리나라에 제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경상대학교도서관의 경우 20여명의 사서가 있으나 1급 정사서 6명, 2급 정사서 12명, 준사서 2명으로 그중 학부나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 외의 다른 학과를 전공한 사람은 8

명이다. 이들 중 5명은 한 학문에 치중되어 있어서 주제별 배치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2급 정사서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도서관의 제반 업무를 두루 경험한 15년 이상의 근무경력 과 40대 이상의 연령대를 기준으로 하여 배치가 가능하다.

주제담당사서는 기존 참고사서의 지식적 역할에 매체접근 기술의 다양화와 함께 주제지식을 바탕으로 보다 깊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보안내자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정보의 분석 및 평가자로서의 역할까지도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사서 각자가 소양과 관심 있는 특정주제 분야를 선택하여 주제지식을 학습하여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주제별 워크숍 이나 세미나를 통하거나 해당 분야의 관내·관외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하여 주제 분야에 재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2004년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연수원에 주제전문가 양성 과정이 신설될 예정이므로 도서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육성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넷째, 주제담당사서는 각 주제 분야의 전자정보를 수집, 분석, 가공 처리하여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해야 함으로 전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정보기술과 관련된 지식을 갖추 수 있도록 대학내에 있는 정보기술과정에서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관련 주제 학부와 연계한 협동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서가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각 주제와 관련된 사서들간의 모임을 갖고 협력할 수 있는 라인을 공식화하여 정보교환과 지식을 공유해 주제전문사서로서의 역량을 증대한다. 여섯째, 주제자료실에 근무하는 주제전문사서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승진, 성과급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 처우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런 다양한 교육 및 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천함으로써 기존의 인력을 활용한 주제자료실에 대한 활성화를 기할 수 있다. 대학도서관의 규모에 따라 적정 인력을 배치하여 주제별 자료실을 담당하는 사서가 업무과중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지양하고, 서비스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인적자원의 활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정보서비스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달은 도서관 기능을 정보제공 중심에서 교육과 지도 상담기능 중심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즉 정보제공 기능은 어느 정도 이용자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시점에서 도서관에서는 다양해지고 있는 정보원의 사용법이나 내용소개 등 이용자들의 정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을 강화하고 이용자들의 요구에 맞는 자료나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지도, 상담을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각 주제자료실에서는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요구에 따라 효과적으로 주제 분야의 모든 정보원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표 3> 정보서비스 내용

구분	현 재	향후 계획	비고
정보 서비스	①참고 질의/응답 ②주제별 온라인 참고서비스 ③각종 서지 정보제공	①참고 질의/응답 ②주제별 온라인 참고 서비스 ③각종 서지 정보제공 ④주제별 서지 및 색인 작성 -핵심 학술지 대상 ⑤이용자 대상별 서비스 개발 -관련 학회 및 정보 사이트 제공 -개인별 주제 SDI서비스 등 ⑥정보기술 활용 -홈페이지 운영 -전자우편 이용 각종 공지 사항 및 학술지 목차 스캔 서비스 등 -핸드폰, PDA 등 모바일 서비스 ⑦이용자 교육 -도서관 이용방법 -정보검색 방법 -주제별 교육교재 개발 -학기별, 방문교육 -주제별 안내 팸플렛	

<표 3>과 같이 주제별 자료실에서 수행하여야할 정보서비스가 다양화되고 있다. 따라서 주제별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도서관에서는 대학의 성격과 특성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정보서비스 제공방안을 개발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러한 서비스 개발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장서개발

주제자료실 정보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담당 사서의 주도하에 각 학문분야의 핵심자료인 기본 장서가 개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담당사서는 첫째 각 학문의 하부영역과 연구 동향을 파악해야 하며, 둘째 담당 주제 관련 학과 교수와 긴밀한 채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채널 유지는 장서개발 뿐만 아니라 참고봉사 활동에도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다. 셋째 학기마다 각 교과목의 강의계획서를 참조하여 교재 및 참고문헌을

도서관에 확보할 것. 넷째 주제자료실에 입수되는 연속간행물의 목차를 참고할 것. 다섯째 출판동향의 파악, 주제분류를 통하여 자료선정을 효율적으로 실시한다.

나. 이용자 대상별 정보서비스 제공

이용자 대상별로 적절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즉 교수 및 연구원, 대학원생, 학부생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학부생의 경우에는 과제물 작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대학원생의 경우 정보검색 방법을 교육하고, 교수를 위해서는 개인별 관심주제를 파악하여 주제 및 연구분야에 따라 목차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제별 선택적 정보제공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다. 정보기술 활용

각 주제를 담당하는 사서가 각 주제에 관한 홈페이지를 만들어 학문별 안내자료, 주제서지, 신간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학술정보망이나 주제사이트를 연계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최신의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신간정보, 신착자료, 목차서비스 등의 정보제공을 위해 모바일 서비스 등 유비쿼터스(ubiquitous)체제를 구축하여 보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라. 이용자 교육

대학교육과 학습을 위해 올바른 도서관 이용방법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특히 대학 도서관을 처음 사용하는 이용자들에게 도서관 자료의 이용법 및 도서관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예절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주제전문사서들에게 행해지는 단순한 성격의 질문을 줄이고, 도서관을 좀더 친근감 있게 느끼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서관이용 팸플렛의 비치, FAQ(Frequently Asked Question)의 활용, 또는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도서관 입구에 안내데스크(Information Desk)를 설치하여 정확한 이용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제까지 도서관 이용자 교육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주제별 운영에서는 해당 주제 분야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용자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주제별 학술정보 검색법, 검색된 정보자료를 활용한 논문작성법 등을 해당 주제군 대학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용자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제담당사서는 도서관 이용교육과 정보이용교육, 정보관리 교육으로 나누어서 이용자층별, 정보의 종류, 주제구분에 따라 다양하고 체계적인

이용자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 즉 주제에 따라 교육교재를 철저히 준비하여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많은 이용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V. 맺음말

21세기 대학도서관은 정보생산량의 증가,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른 외부 환경의 변화 및 이용자 정보요구의 전문화·세분화 경향에 따라 대학도서관의 전통적 기능이었던 자료의 보관적 기능과 수동적 정보제공 기능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교육적 기능과 정보평가자로서의 기능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따라서 대학도서관에서는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도서관 조직으로서 주제별 조직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주제별 자료실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경상대학교도서관의 주제자료실 활성화 추진 방안에 대하여 방향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운영과 조직 형태가 거의 비슷한 우리나라 국립대학교도서관의 주제자료실 활성화 방안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도서관의 주제전문화의 이상적인 모형은 각 주제에 따라 일체의 모든 도서관 업무와 자료가 분리되는 주제별 조직이 바람직하다. 이는 대학내에서 도서관의 인식 제고와 사서로서의 자긍심을 알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하지만 현실과 물리적 지원의 한계를 고려할 때 참고봉사의 기능과 자료 배치를 주제별로 강화하는 정보서비스의 주제별 부문화부터 주제전문화를 점진적으로 시도해야 한다. 즉 개별 대학도서관의 건물 공간, 장서량, 사서 인력 등을 고려하여 경제성과 효율적인 자료실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도서관 현관에 안내데스크(Information Desk)를 설치하여 대출·반납 업무, 기타 행정서비스 등 각 자료실에서 발생하는 중복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이용자 서비스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셋째, 이용자들의 특정 주제 분야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주제전문사서를 양성하는데 지속적인 투자와 계속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해당 학문 분야의 연구동향과 관련 있는 교수와 긴밀한 채널을 유지하고, 국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산하에 주제별 분과 위원회를 만들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개최하여 주제배경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넷째, 이용자의 특성이나 성향 정보요구 분석 등을 고려한 차별화된 봉사 시스템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개발된 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정보이용이 가능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섯째, 이용자의 보다 효율적인 주제별 조직 활용을 위하여 주제별, 자료형태별, 이용자

별로 전문화된 효과적인 이용자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실정에서 완벽한 서구의 주제자료실 모형을 따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다소 무리가 있지만 정보화 시대의 정보기술 발달에 따른 대학도서관의 변화와 다양화 개별화되고 있는 이용자들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기 위해 도서관 조직 구조는 변화되어야 하며,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용자 요구에 대응하여야만 대학도서관으로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구자영. 1979. “주제 전문사서의 양성을 위한 교육.” 「圖書館學」. 第6輯:37-51.
- 강미혜. 1998. “주제전문사서직에 관한 문헌연구.” 「덕성여자대학 사회과학연구」. 5:1-22.
- 강진백. 1994. “대학도서관 조직구조의 개선방안.” 「도서관」. 49(1):94-112.
- 강혜영. 1999. “대학도서관 주제담당 사서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 김정근. 1995. “주제접근법에 의한 대학도서관 장서개발 모형연구”. 「도서관학논집」, 23:285-328.
- 남태우. 1995. “大學圖書館에 있어서의 分館制度에 관한 考察.” 「國立大學圖書館報」, 13:1-24.
- 오세훈. 2001. “대학도서관 주제자료실의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 「文獻情報學論集」, 7(1):1-14.
- 이소영. 2001. “국내 대학도서관의 주제별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용재. 2000.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에서의 주제별 참고봉사 활성화 방안.”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4(2):69-86.
- 이용재. 2001. “대학도서관 운영의 주제화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부산: 부산대학교대학원.
- 李鎮相. 1983. “主題閱覽室 組織運營에 관한 小考: 國會圖書館을 中心으로.” 「國會圖書館報」, 169:20-30.
- 정재영. 1999. “大學圖書館 변화의 방향 : 주제관 활성화를 중심으로.” 「도서관문화」, 40(6):4-19.
- 정준민. 1994. “大學圖書館 經營의 새로운 시도.” 「國立大學圖書館報」, 12:6-17.
- 최상기. 1998. “대학도서관의 경쟁력 강화방안.” 「國立大學圖書館報」, 16:5-14.